

이수화학, 의료서비스 사업 추가

유비케어 인수 확정 ... 바이오산업과 연계해 시너지 극대화 모색

이수그룹(회장 김상범)이 10월27일 의료정보화 전문기업인 유비케어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이수그룹은 이수화학을 통해 유비케어 대주주인 엠디하우스와 주식양도양수 계약을 맺고 엠디하우스 등이 보유한 유비케어 주식 1095만주를 인수했으며, 추후 기타 주식 일부를 추가 매입해 약 39%의 지분을 획득하고 최대주주로 올라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수그룹은 유비케어와 엠디하우스의 적대적 M&A가 진행되면서 쌓여왔던 양사간 갈등을 원만히 해결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지분을 우호적으로 인수받아 대주주가 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적대적 M&A 종결에서 혼치 않은 사례를 기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수그룹에 인수된 유비케어는 의사량, 엡팜 등 의료정보화 솔루션을 개발·공급하고 있으며 2003년 매출액 173억원을 기록하는 등 관련분야 최대 시장점유율에 1만3000여개의 병의원 및 약국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유비케어는 “1년 이상 경영권 방어에 집중하느라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벌이지 못했으나 이수그룹이 안정적인 대주주가 됨에 따라 의료기기 유통사업,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다양한 의료서비스 사업 등에 박차를 가해 사업경쟁력과 수익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수그룹의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이수의 김성민 사장은 “인수를 통해 이수그룹이 추진중인 바이오산업에서 기존의 신약개발 사업과 의료진단 서비스에 의료정보 서비스를 추가함으로써 시너지를 높여 미래 신수종 사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유비케어가 제2의 도약을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10/29>